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
[데살로니가전서 묵상]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3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1:1-3)	5
믿음, 사랑, 소망의 승리 공동체 (1:2-3)	14
사랑의 수고 (1:3-4)	17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 (1:4-5)	20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1:4-5)	26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말게 하소서! (1:5)	34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전해야 합니다. (2:1-6)	36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2:7-12)	47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2:13-20)	61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3:1-7)	73
사랑의 기쁜 소식 (3:6)	81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3:8-13)	83
“더욱 많이 힘쓰라” (4:1-8)	92
“형제 사랑에 관하여” (4:9-12)	104
자는 자들에 관하여 (4:13-21)	110
때와 시기에 관하여 (5:1-10)	117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5:11-15)	123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5:16-22)	134
하나님은 미쁘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5:23-24)	151
마지막 네 마디 (5:25-28)	160
결론	170

서론

공동체란 무엇인가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 중심된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동체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교회와 공동체의 관한 책들을 사서 읽으면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알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보고 듣는 교회에 관한 소식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나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 텐데 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일까?’, ‘왜 지금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투며 분쟁 가운데 분열하고 있는 것일까?’ 등등. 저는 이런 저런 교회에 관한 고민 가운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교회란 공동체에 대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된 공동체에 관하여 졸업 논문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면서 바울의 편지를 다 묵상하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약 2년 전에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하며 설교를 시작했는데 어제 주일에서야 다 마쳤습니다. 저는 틈틈이 묵상하고 설교한 데살로니가전서 내용들을 책 원고식으로 모아서 정리를 해놓았는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책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 수정한 이유는 지난주일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절인 5장 28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하면서 “은혜”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1:1) 끝내면서도 “은혜”(5:28)를 언급한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전서의 전체를 묶어주는 핵심 주제가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 생각났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저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체적으로 잘 묘사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라고 생각되어 그리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전서 책 원고를 마무리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조금이나마 성경적인 교회론, 성경적인 공동체론을 배우는데 유익되길 기원합니다. 배우므로 우리가 각자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섬기면서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공동체를 꿈꾸며 추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9년 2월, 승리장로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할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생각할 때마다”라는 말씀은 ‘기억할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고 말했습니다(엡1:16).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제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도 ‘제가 당신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2년 11월 13일에 새벽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쓴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빌1:3). 어떻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8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3절)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6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선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잠 17:9)]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살전1:2).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왜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3절).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라는 제목을 걸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 3가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현대인의 성경) “믿음으로 행한 일”]. 과연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였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한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9절).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까?

(2)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후부터 오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받을 필요 없는 환난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그 많은 환난들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2:13).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13절).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까?

(3)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각처에도 나타난바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까?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나는 믿음의 역사, 과연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목격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목격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1:2-3).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2:13).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사랑의 수고와 ...”. 과연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5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고는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수고하였고 애쓴 것입니다(2:9). 그리고 바울과의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그들의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14절). 그들 또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었으므로(15절)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들 또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목격하고 있습니까?

(2)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란 서로 사랑함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들을 사랑하였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3:12)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4:9). 사랑하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5:12-13).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았습니다(14절). 그들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랐습니다(15절).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바울은 그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치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3:12).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고를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목격하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생각할 때 왜 이들이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사랑(God’s chosen love)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5절). 한 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고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목격하고 있습니까?

(3)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란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고후1:3).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6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4절). 즉, 우리가 위로 받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위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6절).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을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하되 우리는 여러모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로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로해야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관하여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다시 사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고전15:3-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살전 4:14-16).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17절). 성경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8절). 특히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로 위로해야 합니다(5:14).

(4)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란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마16:18).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겸손히 동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고전 14:3-5, 12, 26)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쓰는데 우리는 특히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살전 5:11). 어떻게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엡 4:29).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등을 하여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므로 그들의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고후 12:15). 사랑하되 우리는 특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살전 5:14).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붙들어 주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에 견고히 서 있도록 붙들어 줘야 합니다.

(5)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란 서로 화목 하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 및 친구들, 직장 동료들 등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성경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하게 살아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풍부하면서 가족 식구끼리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한 5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살전 5:14), (2)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막 9:50),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8:34), (4)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9:34-37), (5)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9:41).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되 특히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살전4:9)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3:12).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목격한 사도 바울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 기도드렸습니다(1:2-3). 그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2:13).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의 “소망의 인내”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현대인의 성경)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과연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소망의 인내를 한 2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기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5절) 이르기 전(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9절).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선택하시어(4절)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2:12).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님 앞에서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19-20절).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도의 죽음을 접할 때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4:13). 그 이유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14절). 더 나아가서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슬퍼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14절). 한 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니다(롬12:12). 이러한 즐거움과 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2)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간구했습니다(13절). 비슷한 바울의 기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나와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은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4:3).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에(7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3-5절).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삶을 살므로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1:2-3).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으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승리 공동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3절).

오늘 저는 우리 승리장로교회 30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승리 공동체가 되어 하는지 한 3가지로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승리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합니다.

과연 믿음의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바라는 우리 승리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므로 우리 승리교회는 여러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는 교회가 되어 합니다(살전 3:3). 믿음의 공동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처럼(8절) 우리 승리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믿음의 소문이 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승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합니다.

과연 사랑의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사랑의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승리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 합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와 언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가 된 우리 승리 식구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의 공동체란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경계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1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1:1)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면서 마치 아버가 자녀에게 하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여 경계했습니다(2:11-12). 이와 같이 우리 승리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되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또한 사랑으로 서로 경계하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4:9)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움을 받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승리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 합니다.

과연 소망의 공동체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소망의 공동체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 13절에 와서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소망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13절).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했습니다(5:1ff.).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6-8절). 바라기는 우리 승리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 승리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또한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믿음이 소문난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승리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하여 사랑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소망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수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데살로니가전서 1장 3-4절).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유하는 기쁨과 분유하는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만 대화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공유하는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예수님의 계명인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마5:44)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원수가 없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수까지는 아닐지라도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조차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맛보되 그 신적인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새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를 찬양합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1절).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비취신 것처럼 저 또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충만히 경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1절)를 쓰면서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인 실루아노와 디모데(1절)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을 기억(2절, 현대인의 성경)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사랑의 수고”(3절)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읽은 후 4절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그 “사랑의 수고”를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사랑입니다(4절).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참고: 엡1:4). 그리고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질상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효과적인 부르심(소명)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롬 8:29-30)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즉 예정하신(엡 1:4-5) 그들을 부르시사 먼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중생하게 하시사 회개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주시므로(회심)(살후 2:13-14)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굉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에(살전 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4:9). 사실 그들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그들이 실천하였던 “사랑의 수고”(1:3)는 무엇이였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손수 일하도록 힘썼습니다(4:11,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들은 서로 위로했습니다(18절). 또한 그들은 “지금까지 생활해 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었습니다(5:11,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그들을 위해 일하는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냈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았습니다(14절). 그들은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자기 자신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했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항상 잘(좋게) 생각하고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3:6). 이 모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1:3)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바울은(2절) 그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저는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수고를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향한 바울의 사랑의 수고란 하나님의 복음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었습니다(8절). 저는 이 바울의 사랑의 수고를 목상할 때 전에 새벽기도회 때 목상한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요 10:11, 15, 17).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살전 2:8). 바울이 그랬다면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분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대속 죽으심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던 바울(살전 2:8)을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을 본받아(참고: 고전 11:1)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주는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기뻐하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사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갈 5:22). 이렇게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의 수고자들로 세워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

[데살로니가전서 1장 4-5절]

오래 전에 저희 교회 나오던 형제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고 누구는 선택을 안 하셔서 지옥에 가야하는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 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아무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형제가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그 말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 때 그 형제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생각엔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실 수가 없다고 제 나름대로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 형제가 말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는 안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답변할 만한 믿음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형제의 말에 저는 이렇게나마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자들로서 마땅히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만일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루아노와 디모데(1절)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현대인의 성경)[(개혁개정)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 자기와 실루아노 및 디모데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5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왜 그 복음을 들은 상대방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의 삶에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로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5절). 그러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in power) 전해졌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친구 등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미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기도회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인용하여 3가지로 목상했었습니다: (1) 죄책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 진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란 죽음입니다[(롬6:23상) “죄의

샀은 사망이요”]. 죄의 형벌인 죽음이란 (a) 육체적 죽음, (b) 영적 죽음 그리고 (c) 영원한 죽음(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형벌을 면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2) 죄의 종에서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습니다(엡2:2-3). 즉,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3) 죄의 오염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 본성은 죄의 오염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선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 본성은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죄의 오염에서 구원을 받아 우리의 본성이 선하고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져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죄책에서의 구원, 죄의 종에서 자유, 죄의 오염에서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요 또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고후13:4).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으로(in the Holy Spirit) 전해졌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친구 등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 또 성령으로 아니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인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행16:14).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자복할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찰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라고 물었습니다(행2:37, 현대인의 성경). 그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38절, 현대인의 성경). 그 말대로 순종하여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 되었습니다(41절, 현대인의 성경).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찰림 속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친구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진정한 회개를 하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큰 확신”으로(with full conviction) 전해졌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친구 등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성경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확신하노라”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작한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은 결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거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확신은 하나님에게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랑하사 선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셔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케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큰 확신”(with full conviction)이 임하였습니다. 그 큰 확신은 적어도 2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1) 죄에 대한 큰 확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의 메시지가 있습니다(눅24:47, 행10:43, 13:38, 엡1:7).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죄 사함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확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확신이 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양심)에 찔림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행3:19). (2) 구원에 대한 큰 확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에 대한 큰 확신 속에서 동시에 성령님이 주시는 큰 확신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롬4:25).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1서 5장 11-12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제가 전에 즐겨 부르던 미국 복음성가 중에 “Why have You chosen me?”(왜 나를 선택 하셨나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가사가 제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임. 한국어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1절)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에게 범한 모든 잘못들을 아시면서도
 왜 저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나의 죄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2절)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지 도와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분투하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받칩니다, 당신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옆에서 끝까지 걸겠습니다.

(후렴)

저는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지,

기꺼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놀랍습니다.

그 분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그 분의 긍휼은 너무나 풍부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데살로니가전서 1장 4-10절]

언젠가 같은 노회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도 자기 교회에서 직분자를 훈련시켰는데 시험 후 노회 고시부에서 그 분들을 구두로 시험 치르게 해줄 수 있냐고 물으셔서 다른 고시부 목사님들과 그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서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하여 시험 본 분들 중 한 분이 우리 목사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나쁜 짓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도 천국을 가는 것입니까?’ 그 때 저는 옆에서 그 질문을 듣고 그 집사님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좀 알기에 답변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답변을 하셔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의 질문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가 인간의 노력인 선행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faith)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실한 삶(faithfulness)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엡 2:10).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교리를 잘못 받아들여서 선행을 하기보다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함께 교회를 다니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새 사람인지 아닌지를 의문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또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만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이유를 목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5절).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큰 확신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다 인가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것이 다 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는지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사실 외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으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는지를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다 더 못하게(나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나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더욱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고전15:10).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수고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요? 선을 행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인가요? 이 모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빌 1:2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님과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는지 좀 의아해 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리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는 김세윤 박사님의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란 책을 보고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실루아노와 디모데)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말의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원어대로 번역하면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시오.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입니다(김세윤).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선포자는 복음을 말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삶을 통해 그려 내야 합니다. … 이것이 복음 선포자의 임무요 소명입니다”(김세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복음 선포자의 임무요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 선포자였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본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려내 준 복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및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 및 주님을 본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많은 환난(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은 많은 환난(고난)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2:14).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포한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총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자의 광패들까지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로마 관원에게 고소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김세윤). 그런 와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KJV 성경 주석).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슬퍼하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십니다. 그 결과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말씀으로 빛으시사 거룩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본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란 지역의 수도(중심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종들을 본받고 또한 주님을 본받은 그들의 모범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만 아니라 마게도냐 전 지역으로 퍼졌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승리장로교회 식구들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범된 삶이 남가주에서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전체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모범이 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 아가야 전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 승리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범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되 교회 전체적으로 적어도 이 지역 사회에 사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회사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금년,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는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견고해 지기 위해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현대인의 성경)[“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책도 읽으면서 성경문답도 하고 또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 답변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상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많은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자라나지 않고 견고하지 못한지 한 2가지 이유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서 고난이 없어서 그럴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가사를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자 작은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읽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 행하고 있었던 죄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법(말씀)을 배우게 됩니다(71절).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고난이 없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견고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살전1:6). 여러분,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나요? 오히려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므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 마음에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최고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새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곳곳에 퍼졌기 때문입니다(8절). 여기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3가지를 좀 간략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생각엔 많은 환난에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계기가 되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둘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여 입술로 죄를 짓던지 아니면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 지던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제가 고장을 수 할머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양로원에 계실 때에 제가 찾아볼 때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한 그 분이 시편 23편과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저에게 종종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그리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분은 숨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히려 교회에 나오셨을 때보다 더 자라나고 견고해 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가 하면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널리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널리 퍼졌다는 사실이요?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므로 더욱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널리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승리장로교회 식구들이 신앙 때문에 여기 Los Angeles에서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캘리포니아 전체뿐만 아니라 네바다 주까지 널리 퍼졌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참고: 행 20:24). 그러기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 및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믿음에 견고히 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믿음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 중에 ‘할 말을 잃었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런 말을 사용하나요?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할 말을 잃었다’란 말을 쓰는 이유는 너무나 놀랍고 굉장해서 그 문구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에 여행 온 사람이 웅장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그 앞에서 놀라서 할 말을 잃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사실을

알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난 믿음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바울이 그들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무슨 말을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위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를 보면 제가 그 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 한들 목사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대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견디며 결국에는 승리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승리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않고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여기저기에 널리 퍼지길 기원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말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 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가전서 1장 5절)**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이른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한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설득력 있는 능력이 동반되지 않은 연설을 말한다'(Speech unaccompanied by the convincing power of the Holy Spirit)(주석).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말로만 설교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자문해 봅니다. '성령님의 설득력 있는 능력이 동반되지 않은' 설교는 듣는 자들에게 지식은 전할지 모르지만 변화를 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로서 상당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새 생명 축제 전도 집회 때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말로만"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의 태신자 들에게 무의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말씀과 기도로 부족한 가운데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 저는 복음이 이번 주 토요일 전도 집회 때 어떻게 이르기를 원하는가? 질문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한 3가지를 기도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복음이 "능력"으로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 로마서 1장16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말하는 "능력" 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듣는 자들 마음에 "믿음의 역사"(3절)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새생명축제 전도 집회를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이 "성령"으로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성령으로 이르렀다는 말씀은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바울과 그의 동역자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6절).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3절). 성령의 열매인 사랑, 복음이 성령으로 이르매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도 집회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말고 "큰 확신"으로 이르길 기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선포되매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인들의 마음에 능력 있게 역사하시사 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설득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세주요 주님이심을 설득 당했던 것입니다. 설득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3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그 이유는 재림의 큰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 복음이 큰 확신으로 듣는 자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한 큰 확신뿐만 아니라 그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큰 확신으로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아무 소득이 없이 일을 끝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지난 주 초에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영화를 보러 가려고 계획을 세운 후 어제 토요일 극장에 갔었는데 결국 영화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갑은 가지고 갔는데 극장에 가보니 이미 영화 티켓(표)가 다 매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는 ‘허탕을 쳤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그 말 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말은 아마 ‘헛걸음을 하였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헛걸음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내가 괜히 방문했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여러분이 방문하여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잘 안 되서가 아닌가요? 혹시 그 만남이 여러분이 계획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만일 그 만남이 서로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헛걸음을 했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만남이 헛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갖는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중심된 만남, 복음 중심된 만남에는 결코 허탕을 치는 일이 없고 헛걸음을 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서로에게, 아니 적어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만남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생각엔 그 만남이 헛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었을 때 그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그의 동역자와

함께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사도행전 16-17장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도중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고(행16:6) 또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7절). 그 때 바울과 그의 동역자는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8-9절). 그 때 바울은 그의 동역자와 의논하고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그 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판단)하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10절). 그 때 그들이 마게도냐로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12절).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도시)으로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12절).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므로(13-14절) 그녀가 주님을 믿고 그녀의 온 집안도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15절). 그녀와 그녀의 집안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간수(23절)와 그의 온 집안도 예수님을 믿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30-33절).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고난과 능욕을 당하므로(살전 2:2) 데살로니가로 내려간 것입니다(지도를 보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서쪽에 있음)(행 17장).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행 17:1-3). 그리했을 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습니다(살전 1:5).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 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9-10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친히” 안다[“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그 때 과거에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5절).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9절).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10절).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가 그 지역에 들어간 것이 헛된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2:1). 그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2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전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엔 목사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나요? 목사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데 두요? 목사님은 하나님 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두요? 목사님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두요? 그래도 여러분은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직자(신부, 스님, 목사)에 대한 신뢰도에 관한 한 2015년 설문 조사를 보니까 성직자를 신뢰한다는 답이 29.6%, 신뢰하지 않다는 답이 35.3%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천주교 사제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51.3%). 그 다음이 불교 스님(38.7%)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17%만이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제가 2011년 10월에 “외식하는 우리 목사님(아버님), 어떻게 반응해야죠?”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예: 마 23:15)란 단어의 의미는 “배우” 또는 “위선자”란 뜻으로서 가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또는 위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사전 WSNTDICT).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3장 3절의 문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크게 2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 외식하는 자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마23:3b) “...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2) 외식하는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마23:5)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웃술을 크게 하고”]. 저는 그 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론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직장에 가서 우리의 상관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가서 우리의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성경도 잘 가르치시는데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집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므로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으시는데 집에 와서는 180도 다른 면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 외식하는 상관을 끝 보기 싫어할 수도 있고, 위선적인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아 교회를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으며, 집에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매일 볼 때에 아버지께 대한 존경심을 잃고 실망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외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까요?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닮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복음의 내용)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았지만 우리는 복음 선포자로서 복음을 말로 선포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복음을 삶을 통해 그려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자인 우리의 임무요 소명입니다(김세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 선포 자였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본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려내 준 복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6절).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십니다. 그 결과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말씀으로 빛으시사 거룩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동역자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김세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핍박)하던 자였습니다(고전15:9).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상반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12절).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사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충성되이 주님의 일에 수고하되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행 20:24).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련을 통해서 시험하므로 그 시험에서 통과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입니다(창 22:1). 그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나이 100세 때 주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2절).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에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9-10절). 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12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시 26:2).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양심이 단련을 받을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양심이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련을 받는 그 때에는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시련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으로 연단이 될 것입니다(벧전 1:6-7,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살전 2:4).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아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위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지를 최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재판석 앞에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의식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인 바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을 책임 있게 감당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의 논리에 근거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살전 2:5).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간사한 말이나 음흉하게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취(취리)하고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즉, 그는 회중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골라서 하므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를 얻으며 심지어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김세윤). 김세윤 교수님에 의하면 바울 당시 떠돌이 철학자들에 대해 디오 크리소스툼(Dio Chrysostom)이 비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중한테 돈을 받아내려고 아첨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떠돌이 철학자들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항상 왜곡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김세윤). 지금도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서 헌금을 받아내려고 교인들에게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서 아첨하는 말을 하라는 유혹을 쉴 새 없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복음이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엄청나게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게 하며, 윤리를 변하게 하고, 삶을 변하게 하고, 문화를 변하게 하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김세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왜곡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서가 아닌가요? 그러면 왜 왜곡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복음 전파자인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복음이 너희(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살전 1:5).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전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담대히(용기 있게) 전해야 합니다.

제가 금년 초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게 된 책 저자인 김형석 씨의 새로운 책이 발간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백년을 살아보니”였습니다. 저는 그 분이 쓰신 새 책 제목을 보고 꼭 사서 읽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을 섬기게 하시면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 자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00세를 사시고 계시는 그분의 관점에서 책을 어떻게 쓰셨을까 궁금해서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 내용 중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 도전이 되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며,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제해야 할 욕망을 위한 용기 같은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니다. 선한 의지와 고상한 목표를 위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윤리적 신념이 있어야 한다. 뚜렷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위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물러나고 물려주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직책이나 지위를 가지려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적인 후퇴를 방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형석씨가 말한 “용기”와 “신념”과 “지혜” 중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용기”에 대한 그분의 말을 좀 먼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말로는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며 그 용기는 “선한 의지와 고상한 목표를 위한 용기”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선한 의지와 고상한 목표를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에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용기에는 “선한 의지”와 “고상한 목표”가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관점으로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한 듯 그 사람에게 선한 의지가 없고 오히려 악한 의지가 있다면 그 젊은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젊은이가 선한 의지는 있는데 고상한 목표가 없다면 아무리 그가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될지 의문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드온의 300명 군사와 같은 용맹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로 세움 받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꿈을 이루어 드리고자 믿음의 반석에 견고히 서서 전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길 기원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이들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난관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의 기도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묵묵히 한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 좋은 모델이 바로 짐 엘리엇이란 젊은 선교사입니다. 비록 그는 29살이란 젊은 나이에 에과도르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하다가 순교했지만 그는 충분히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귀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고상한 목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에과도르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는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했던 선교사를 만났고 그가 복음을 들고 다가가고자 하는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친구들은 엘리엇이 위험한 선교지로 가기보다 미국에 남아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4명의 선교 동역자와 함께 에과도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6년 1월 8일, 그와 4명의 동역자는 원주민 전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총은 정글의 야생 짐승들로 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 결코 위험한 원주민들에게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지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곧, 그들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짐 엘리엇이란 선교사님은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담대히/용기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받은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바울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왜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편지로 말한 것일까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그들에게도 많은 환난(고난)이 있었는데(1:6) 왜 바울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빌립보에서 당하였던 고난과 능욕을 언급한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울은 자기와 주님을 본받아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6절)에게 용기를 본도다 주고자 그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담대하게”란 단어에는 “솔직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시에 또한 “말하는 용기”라는 뜻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김세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기처럼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전하길 권면했습니다(김세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며 조롱하는 자들로 부터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기 있게/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행 4:29).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엡 6:19).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전하기 위해선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참 달콤한 것 같습니다. 그 달콤한 맛을 들이다보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고자 애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맛에 중독이 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상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별의 별 짓을 다하는 추한 모습으로 살다가 무너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울인데(삼상15:17)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12절).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말입니다(3, 8-9절).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을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19절) 죄를 하나님께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달라(30절)고 사무엘의 겹옷자락을 붙잡고(27절) 애걸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4절)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6절). 만일 그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했다면 그는 사도로서 마땅히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만일 그가 그리했다면 그는 적어도 교회에서만은 섬김과 대접을 어느 정도 잘 받았을 것임. 또한 그는 밤낮으로 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9절).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고전9:14)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계를 지원하라고 요구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김세윤). 그렇게 바울은 그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살면 되었을 것입니다(살전 2:9).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6절, 현대인의 성경) 그 권위를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복음 전파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높임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소유욕도 위험하지만 참으로 명예욕도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영광스러운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장례 예배 때 사람들 보기에 영광스러운 이력서(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인생을 헛되게 허비 하면 서 살라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십시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거니와 …”(요8:54).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54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시115:1).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헛되지 않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pass)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탐심을 탈을 쓰고 아침하는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살전 2:5).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담대히(용기 있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 받아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12절]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고,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전화를 하며,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제 자신에게 던져 보았을 때 저는 제 아내에게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를 할 것이며 저는 그녀에게 “I love you”(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사랑할 시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습니다. 사모하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빌1:8)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매우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살전 2:4-5)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매우 사모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는 제목 아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한 5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쁨과 같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쁨과 같이 하였으니”[(현대인의 성경) “오히려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 길러본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기 때 어떻게 길렀는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를 보면 저는 저희 집 세 자녀들이 아기 때의 일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 아내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잘 기억나는 것은 저희 집 아들 딜런이 아기 때 아내는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하고 있었기에 제가 한 1년 반 동안 딜런을 돌본 것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하. 그만큼 엄마들은 아빠들보다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녀들의 아기 때 추억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엄마들은 자녀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엄마들은 아기가 울 때에 왜 우는지도 아빠들보다 더 잘 알고, 아기가 하는 말도 아빠들보다 더 잘 압니다. 하하. 또한 엄마들은 아기들이 울 때 배고파서 우는 것을 매우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곧장 우는 아기를 품에 앉고 젖을 먹입니다. 그 때 엄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젖을 먹는 아기는 배가 부르도록 다 먹은 후 고이 잠듭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보면 “유모”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아기 모세의 유모 이야기입니다. 아기 모세의 누이가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출 2:7). 그 때 애굽 왕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하여 결국에는 모세의 누이는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와서 그녀로 하여금 모세에게 젖을 먹였습니다(8-9절). 이 이야기를 보면 유모의 역할을 아기에게 젖을 먹고 양육하는 것입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또 다른 유모 이야기는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인 므비보셋의 유모입니다. 그 유모는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성에 전해지자 그녀는 다섯 살 난 므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그때부터 므비보셋이 절게 되었습니다(삼하 4:4). 이 이야기를 보면 유모의 역할은 아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유모의 역할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왕자 이야기에도 나옵니다(대하 22:11).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아스 왕자의 유모가 그를 침실에 숨겨 죽음을 피하게 했습니다(11절). 이 두 이야기를 보면 유모의 역할은 왕손 또는 왕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는데 보호함에 있어서 그 유모들을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여러분을 부드럽게 대했”다(현대인의 성경)]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결혼도하지 않았던 바울이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돌보듯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독신남이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유모가 자기 아기를 기름과 같이 하였을까요? 어떻게 그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돌보듯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였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내세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원어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권세를 행사할 수 있으나”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재정 지원을 요구할 권세가 있었으나 바울은 그리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김세윤, 고전9:14). 오히려 그는 마치 어머니(유모)가 자기 아기를 기름과 같이(돌보듯) 그가 사모하며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면서 자기 자식에서 어머니의 권위를 주장하며 내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현대인의 성경)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큰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까 봐 모든 것을 참아 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오히려 범사에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함으로 그는 사도의 진정한 권위를 세워 나아간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임받았다는 자각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들 때, 또한 인간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탐심을 부정하며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솔직하고 용기 있게 선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권위가 있게 됩니다. ... 근본적으로 바울의 진정한 권위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자기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김세윤).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의 진정한 권위는 복음 선포자로서의 자기 이해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다는 은혜 의식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주어진 권세를 행사하기를 거부하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목사의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진정한 권위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세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들에게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고 모든 일에 참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 장애가 없도록 목사로서의 권위(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나의 권리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고린도전서 9:12).” 참되 저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는 성경 말씀대로 저는 목사(복음전파자)로서 성도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에게 온유하며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참아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딤후 2:24).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자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에게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어떠한 권세를 주장하는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복음 전파 대상자들에게 마치 유모가 자기 아기를 기르고 돌봄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적인 아버지 같이 복음 전파 대상자들에게 권위적인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모가 아기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 (1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 (2절)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 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 (3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으라
-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 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새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둘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해산할 때 고통을 겪어본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자녀가 아기 때 젖만 먹이는데서 끝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기름에 있어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힐 것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그녀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주기를 아까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새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는 고백을 마음으로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주고 또 주는 사랑으로서 심지어 어머니 자신의 생명까지 주고 싶은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희생적인 어머니의 크고 넓은 사랑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조차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개역한글)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허비하는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짐 엘리엇이란 젊은 선교사가 생각납니다. 그가 29살이란 젊은 나이에 에과도르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하다가 동역자 4명과 함께 순교했을 때 그 당시 미국에 일간지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런 머리말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허비)인가!’(What a unnecessary waste!)(인터넷). 과연 그 젊은 선교사들의 귀한 생명은 허비한 것일까요? 짐 엘리엇의 목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에과도르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는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했던 선교사를 만났고 그가 복음을 들고 다가가고자 하는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친구들은 엘리엇이 위험한 선교지로 가기보다 미국에 남아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4명의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에과도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956년 1월 8일, 그와 4명의 동역자들은 원주민 전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총은 정글의 야생 짐승들로 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 결코 위험한 원주민들에게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지닌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곧, 그들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순교를 한 짐 엘리엇이 대학생 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주는) 자, 이러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뭍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그들에게는 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를 대함에 있어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이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만 주기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5장 13-1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친구’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사 49:15).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잊을 수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더불어 주님이 주신 우리 생명도 아낌없이 줘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주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엘리트).

셋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자식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2017년 1월 22일 중앙일보 뉴스에 “자식에게 무덤관리 폐 끼치기

싫어' ... 일본, 폐묘 확산"이란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요약한다면 지금 일본에서는 조상의 무덤을 처분하는 '폐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로 자식에게 무덤 관리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합니다(인터넷).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일본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서든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면 훈계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남한테 양보하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부모들은 남에게 지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애썼습니다(9절). 이러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바울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9절).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로 한다면,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켜 우리는 자비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 선교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일을 하여 돈을 벌어서 선교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자기 생업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김세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선포를 생계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여 다른 이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으며, 그렇게 함으로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거리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김세윤). 만일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내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도움 같이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기쁘게 하며 만족케 하고자 아첨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살전 2:4-5).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며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자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제멋대로 살지 않고) 아무에게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공밥을 얻어먹지 않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7-9절).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였습니다(9절).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 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닌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지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모가 그리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닌가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느 누구도 자식에게 폐를 끼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싶었고 또한 그리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바울은 부족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입니다. 먼저는 그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두 차례 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줬기 때문입니다(빌 4:16).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식들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부모님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요? 영적 어머니인 바울의 사랑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애썼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무 누(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넷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한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교갱협)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옥한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잊지 못하는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표준을 낮추면 망합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분이 말씀하신 “표준”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분이 강조하였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설교 부분은 이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우리의 표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낮추면 안 됩니다. 낮추면 세속화됩니다. 낮추면 망합니다. 낮추면 세상 사랑하고 다름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표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옥한음). 그분은 ‘우리가 힘이 들어도, 십자가를 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표준을 낮추지 말며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인터넷). 저는 그 때 그 말씀을 들은 후 2009년(7월19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글을 씁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추면 망한다는 옥한음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본을 보임에 있어서 기준을 낮추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되야지 아론이 되면 아니 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며 어울리다가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시의 산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고독한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함에 대한 기준을 낮추어서 세상과 좀 짝지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의 기준을 완화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그것을 완화시켰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선 다시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준을 낮추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현대인의 성경) “또 믿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바르고 흠 없이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보았으며 하나님도 이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옳고 흠 없이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책잡힐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다는 말은 죄로 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separated to God from sin”(Believer’s Bible 주석)]. 그리고 옳게 행했다는 말은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올바르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계명)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흠 없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The College Press NIV 주석). 그가 그리 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5:23,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바울은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습니다(2:10). 그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10절). 즉, 바울의 본이 되는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의 증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3:13,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1:7,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거룩하고 옳고(올바르게) 흠 없이 행해야 합니다(2:10).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와 분리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잡힐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 한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단 6:1-2). 그 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총명)하여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 나므로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3절). 그러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허물이나 잘못된 점을 찾아 그를 고발하려고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4절). 그 이유는 다니엘은 충실하고 잘못이나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니엘에게서 아무 흠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아무리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11:1)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인 우리 아버지(남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들은 책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이끄는 것(lead)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까요?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우리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할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다보니 자녀들도 어머니를 본받아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위가 남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 우리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을 신뢰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 자녀들을 신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빠른 결과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뢰하는데 헌신할 때 점진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들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3) 우리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의 아들들하고 마음 문을 열고 일대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말이 없는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화보다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가 이뤄질 때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현대인의 성경)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부드럽게 대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여기 11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균형 있게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이 만하지 않고 동시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사랑만 받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의 사랑을 다 받고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치 유모가 아기를 대하듯(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듯) 길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균형 있게 잘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말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김세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아버지 또는 영적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요?

(1) 영적 아버지는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권하다’라는 원어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경고와 책망의 목적을 가지고 마음에 넣다(to put in mind)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 잘못된 점을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화할 것은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만일 그 경고를 무시 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심판(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동기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영적 아버지는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면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 두 가지 본이란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6절)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천해졌다는 것입니다(10절). 그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신실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바울의 삶을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17절).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바울의 삶은 그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행위와 교훈이 서로 일치하여 일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무엇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3가지로 바울은 말했습니다: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권면’이란 말은 사람의 의지에 설유하여 어떤 선행을 실행하기로 결심케 함”입니다(박윤선). 예를 들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박윤선). 예를 들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같이 하라.”

(3)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경계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6절을 보십시오: “... 곧 음란을 버리고 ...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권면과 위로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경계까지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이 죄를 범하던지 혹은 범할 위험이 있을 때에 그들을 진리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며 경계하였나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6-12절 말씀 중심으로 한 5가지로 목상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그들에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해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며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받은 교훈대로 가정과 교회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20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나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살전 2:8).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12절 말씀 중심으로 한 5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1)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습니다(7절).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8절). (3)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9절). (4)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했습니다(10절). (5)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했습니다(11절).

오늘부터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20절 말씀 중심으로 “당신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2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즉,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Yes, I am coming

quickly”(NASB)].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Amen Come, Lord Jesus”(NASB)]라고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 합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선 우리는 항상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13절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 중 다섯은 미련하여 등만 준비하고 나머지 다섯은 슬기로우서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마 25:1-4). 그런데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열 처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자 그 열 처녀 모두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5-7절). 그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기에 그들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부탁했습니다(8절). 그 부탁을 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9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결혼)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10절).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했지만 신랑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습니다(12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13절).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합시다”(현대인의

성경)[(개역개정)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희망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유혹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종계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호심경(지금 말로 하면 방탄조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투구는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성경 요나 2장 9절 하반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현대인의 성경)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현대인의 성경)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 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현대인의 성경)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겔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36절). 그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함께 간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막 14:32-34).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조금 나아가시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35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6절). 그리고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7-38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벧전 5:8).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현대인의 성경)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새벽기도회 시간 때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유사한 마가복음 8장 35절과 10장 29-3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29-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백배나 받고 아울러 핍박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두 성경 구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제 생명뿐만 아니라 제 가족 식구나 물질을 버려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제가 제일 우선순위에 뒤야 할 것은 제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우리가 이미 목상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4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하여 데살로니가로 와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했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1:5). 그 결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9절).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10절). 그리고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6절).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가 수도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7절). 또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1:2). 그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3절). 특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20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였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2:13). 여러분, 여러분은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으십니까? 물론 제가 설교할 때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2016년 6월에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이러한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란 제목 아래 말씀을 목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저는 먼저 어떠한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 4가지로 묵상했습니다:

(1) 우리는 교인들을 상처 입히고 흠어지게 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흠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목장의 양떼를 해치고 흠어 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목자들이 하나님의 목장의 하나님의 양 떼를 해치고 흠어지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양 떼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했습니다(2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을 돌보기보다 자기 자신을 돌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 떼들을 먹이기보다 자기만 먹습니다(겔 34:2). 그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 바쁩니다. 그들은 연약한 교인들을 강하게 아니하고 상한 교인들을 싸매주지 아니하며 또한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습니다(4절). 심지어 그들은 마치 황소가 뿔로 받아 사람을 치듯이 교인들을 뿔로 받아 결국에는 그 교인들로 말미암아 교회 밖으로 흠어지게 만듭니다(21절). 교인들을 그러한 목사님들에게 상처를 입고 결국에 가서는 교회를 떠나 뿔뿔이 여기저기로 흠어집니다. 이렇게 만드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2) 우리는 우매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13-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우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을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까. 그러면 남쪽 유다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간음을 행했습니다. 그 땅에 간음하는 자들이 가득하였는데(10절) 유다 선지자들도 간음했습니다(14절). 또한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들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습니다(14절). 이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시라는 설교보다 오히려 거짓 위로와 격려의 설교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더 담대하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목사님들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의지하여 헛된 축복 설교를 하던지 돈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하므로 많은 교인들을 그릇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매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매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3)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25-26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25절). 그들은 서로 꿈 꾀 것을 말했습니다(27절). 그들은 거짓된 꿈을 말하고 거짓말과 헛된 자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32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하려 했습니다(27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였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고 했습니다(27절).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런 저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되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꾀 꿈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꾀 꿈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66권에 나와 있지도 않는 꿈 얘기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처럼 교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예언이 너무나 맞는다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찾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교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케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26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면서 그들은 간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26절). 마음에서 나오는 도둑질 본능으로(마15:19)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정을 도둑질하는 목사님의 말도 듣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님의 말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설교를 도둑질하는 목사님의 말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목사님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28-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많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그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렘 1:5).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7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말하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씀을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고 또한 방망이 같다는 것입니다(29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성실히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받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살전 2:13).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믿는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할 것입니다(13절). 그 역사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울 것입니다(눅 24:32). 그 결과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녹아져 내려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우리 마음을 부스러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퍽하고 완강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을 철저하게 부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성실하게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살전2:13).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13절).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14절). 그 말은 구체적으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동족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14절).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므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유대의 교회처럼 핍박을 참아 견디었기 때문입니다(14절, 박윤선). 여러분, 이들이 참아 견디었던 핍박은 어떠한 핍박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은 무엇이였을까요? 바울은 그 핍박이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4절). 그러면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핍박은 무엇이였습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16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일도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언제나 죄를 가득 쌓아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은 먼저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박윤선). 핍박하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핍박하여 쫓아내므로 그들은 이방인에게 향하여 복음을 전하므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일도 방해했습니다(16절). 그 결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득 쌓아 마침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16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게 된 것은 몸이었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 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멀리서 사랑하는 식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 있다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그 식구를 보고자 애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는 그리 애를 쓴 것입니까?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8절). 그런데 그가 그리도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과 복음(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동족에게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17절). 비록 바울의 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들에게 떠나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고자 정말 무척이나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자 “한번 두 번” 그들에게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막았습니다(18절하). 우리는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게 막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탄이 막는 것과 성령님의 막으시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막으시는 좋은 예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들은 “우시아 이른 후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두 번이나 성령님께서서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령님은

그들의 길을 막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사탄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바울이 그리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을 보고자 애썼지만 사탄이 막았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였을까요? 왜 사탄은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로 못 가게 막은 것일까요?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바울을 막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참고: 롬 1-2장). 과연 우리는 성령님의 막으심과 사탄의 막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자꾸만) 막히는 것 같을 때 이것이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사탄이 막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비록 우리가 성령님의 막으심과 사탄의 막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두 종류의 막음에는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고 성령님의 막으심은 하나님의 우선적인 뜻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로 하여금 마게도냐(빌립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사탄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서 보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간략하게 한 마디로 말한다면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고난 중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게 하고자 바울을 그들에게 못 가게 하고자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낙심하여 더 이상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날 저녁에 그 다음 날 새벽기도회 읽을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읽다가 12절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현대인의 성경)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사탄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못 가게 막았던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12절). 그 목적을 이루고자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들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입니다(12절). 다시 말하면, 사탄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못가도록 막으므로 말미암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탄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14절). 그리고 사탄은 초신 자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살전 2:14)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고자 애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눅 8:13).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정말 애쓴 이유는 바울은 그들을 영적으로 존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2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장차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울에게 있어서 소망(희망)과 기쁨과 자랑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신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인 한 영혼,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랑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헛되지 않은 일(빌 2:16)의 열매인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야 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열매라 생각합니다. 그 열매들이야 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서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7절]

여러분들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하나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임한 고통과 역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까지인가요?”(How long?)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였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다”(82절)[(현대인의 성경) “내가 ‘주는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하고 주의 약속의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내 눈이 피로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란 제목 아래 위로를 받은 바울에 대해서 한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더 이상 견딜(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 5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 이러므로 나도 참다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혹시 사탄이 여러분을 껴어 우리가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 염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멀리 떨어져 사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보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작년 초에도 장로님께서 제 장인 어르신 건강이 염려되셔서 저와 함께 운전하고 씨에라 비스타 애리조나 병원에 찾아가 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장로님과 저는 장시간을 운전해서 곧장 병원으로 갔었는데 그 때 시간이 새벽 2시라서 제 장인 어르신과 옆에 계신 장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찾아뵙고 예배드린 후 다시 캘리포니아로 운전하고 오면서 차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계셨던 심 집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님이나 저나 그리했겠습니까? 그 분들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두 번이나 “참다못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바울은 더 이상 기다리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5절).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를 원했냐면 그 이유는 그들은 환난(박해)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4절).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염려가 있었습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그 염려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사탄이 그들을 “시험”(유혹)하여(“껴어”) 자기와 동역자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봐서였습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울의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고자 많은 기도와 노력과 공의 들여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초신자 때 삶 속에 이런 저런 역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 초신자 형제/자매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시험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길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형제/자매가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사사기 10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한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16절)].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한 상황에 놓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사(7절)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치게 하시므로 18년 동안 억압케 하셨습니다(8절). 그리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습니다(9절). 이렇게 심한 곤고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죄를 하나님께 자백했습니다(10, 15절).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16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16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사람 입다를 세우사(11:1)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32절).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지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 막15:34)라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듣고 계셨으면서도 견디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신 것입니다[longsuffering(출34:6)].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는 것을 차마 보고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보시는 것은 견디시면 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마땅한 형벌인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걸으시는 것은 보는 것을 차마 보실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요3:16).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해 주세요”(빌 1:8).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만일 멀리 떨어져 사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큰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족 식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찾아가서 만나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식구들도와 그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잘 견뎌내어 극복하게 하려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리도 가서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 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대신 갈 사람을 찾아서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신 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은 아무나 보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 여러분 대신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대신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여 다시 만나 보려고 정말 애써서(2:17, 현대인의 성경) “한번 두 번” 그들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막았기 때문입니다(18절). 그래서 바울은 자기 대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를 보낸다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살전3:2상).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하반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그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해서 아무로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2하-3절).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요동”한다(개역한글)]라는 단어는 ‘개가 꼬리를 흔든다’란 뜻에 근거하여 ‘아침한다’는 의미로 추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곤고를 당하는 때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죄와 타협하여 편한 길로 가도록 하려고, 개가 꼬리를 치듯이 아침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마귀의 아침에 끌리지 않도록 주의함이 필요하다”(박윤선). 이 여러 환난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이미 장차 받을 환난을 그들에게 미리 말하였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고 또한 실제로 바울의 예언대로 그들은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4절). 그래서

바울은 “참다못하여”[“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현대인의 성경)] 여러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5절). 그러면 과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어떻게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했었을 까요? 저는 그 답변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의 보냄을 받아 고린도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냄을 받아서 그리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를 가리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했겠습니까? 바울이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빌립보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9-20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램은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현대인의 성경) “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19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므로 그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누구(어떠한 자)인지를 편지로나마 미리 소개하였습니다. 그 소개 가운데 저는 21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현대인의 성경)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들 자기 일은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기엔 디모데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있었기에(20절) 바울은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히”(genuinely)란 말은 “아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즉,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사정을

성실히 생각하듯이 바울은 디모데야 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성실히 생각할 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사정을 제일 진실히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 말로 우리의 사정을 제일 성실히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죄악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는 디모데(이름 뜻: 하나님을 공경한다)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요동치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가서 고통과 역경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며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견디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고후1:3-7).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3-4절). 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듯이(롬5:20), 고난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 납니다(고후1:5).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3-6절).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과 위로는 그 누군가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라는 사실입니다(6절). 위로 받기보다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해야하지 어떻게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로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4:18).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는 관계였습니다. 위로하되 바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했습니다(롬1:12).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었고(8절),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9-10절).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관계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목회자와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의 힘을 빼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와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주는 관계입니다. 서로 위로하되 어떻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3:7).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7절).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디모데가 그들로부터 와서 바울에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이전처럼 확고하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그가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을 받아 여러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2-3절).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다녀와서 바울에게 전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6절).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서 있었고 그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향한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이란 원어 헬라어로 “복음”이란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에게는 여러 환난 중에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역자들을 사랑하므로 그들을 잘 생각하여 그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때에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인내하며 극복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저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이 저의 셋째 삼촌이시자 저희 교회 심방 목사님이셨던 고 김창혁 목사님이 저희 곁을 떠나신지 10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을 생각할 때 잊혀지지 않는 중 하나는 그 분에 병원에서 투병 중에 계실 때 자신의 죽음의 임박을 느끼셨던 것인지 저에게 유언하시다시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 저에게 입관예배 인도를 부탁하시면서 입관예배 설교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 김창혁 목사님은 자신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조문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입관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일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기쁜 소식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살전 2:13). 또한 그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3절). 이러한 쉬지 않는 감사 가운데 바울에게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유혹하는 자에게 유혹을 받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3:5). 그래서 바울은 참다못하여(1, 5절)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가 돌아와 바울에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6절). 여기서 바울이 들었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2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 가지란 바로 “믿음의 기쁜 소식”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믿음의 기쁜 소식이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8절). 또한 그가 들은 믿음의 기쁜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4:1).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그들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므로(3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위로 받을 뿐만 아니라(7절)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9절). 그리고 그는 “이제는 살리라”(8절)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길 원했습니다(9절).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더욱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주야로 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10절). 그 이유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10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들은 사랑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잘 생각하여 그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입니다(6절).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고 있다는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여 그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피차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4:9). 서로 피차 사랑하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서로 사랑했습니다(10절).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수고하여 애쓰데(2:9)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14절).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들은 바울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새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기쁜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고난까지 동참한다는 기쁜 소식이 많이 들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들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대로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참 기쁜 사랑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들리는 이 한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13절]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니까?(고전 16:13)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성경 이사야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고전 16:13).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길 기원합니다(시 119:133). 성경 야고보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란 제목 아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는지 한 3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하면 주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하곤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현대인의 성경)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작년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 중심으로 주일 예배 때 설교하셨는데 저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믿음이란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믿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소망하시나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비관적인 상황은 바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백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 이러한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믿고 소망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불가능한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인용: 창15:5)라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롬4:20, 현대인의 성경).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21절).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살전 1:2-3). 그들의 “믿음의 역사”[“믿음으로 행한 일”(현대인의 성경)](3절)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6절).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받을 필요 없는 환난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그 많은 환난들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2:13).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13절).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8절).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각처에도 나타난바 되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까? 더 이상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3:9). 이것이 바로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기쁨이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사는) 것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9절, MacArthur).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3:5) 더 이상 견딜(참을) 수 없어서(1, 5절) 그들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2절).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박해)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4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염려했습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그 염려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사탄이 그들을 “시험”(유혹)하여(“끼어”) 자기와 동역자가 그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을 헛되게 할까봐서 였습니다(5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2하-3절).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6절).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서 있었고 그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향한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습다(7절).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살리라”고 말했습니다(8절).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1:2-3)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이 여러 환난 중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갖다 온 디모데에게 들었지 않았나요?(2:8)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했을까요? (3:10)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다(견디다) 못하며(1, 5절) 그들의 믿음을 알기위하여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그들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과연 그 환난 중에서도 견고히 서 있는지 바울이 염려가 될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4-5절).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밤낮 열심히 간구했습니다(10절). 그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자기와 동역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갈 수 있게 되길 간구했습니다(11절). 그리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서 한번 두 번 그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바울을 막았습니다(2:17-18).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 및 교회 식구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적은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새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빌 1:25).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롬4:20).

둘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선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교회의 하나 됨을 잘 지켜 나아갈 때 교회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위하여 기도했습니다(빌 1:9).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여러분도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미 묵상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10절에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이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를 한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한 8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a)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1:2, 3). (b)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5절). (c)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대했습니다(2:7, 현대인의 성경). (d)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습니다(8절). (e)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했습니다(9절, 현대인의 성경). (f)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흠 없이 행했습니다(10절). (g) 바울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11절). (h)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습니다(17절).

(2)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했었는지(4:9)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했었는지(10절)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했을까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서로 사랑을 했는지 한 6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a)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경의 기쁨을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1:6)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8절). 저는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각자의 믿음의 자라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한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거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b)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2:14).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교회 식구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c) 그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썼습니다(4:11). (d) 그들은 서로 위로하였습니다(4:18).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에 관하여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길 원하였습니다(13절).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의 부활(다시 사는 것)입니다(14절).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1:10)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권면했습니다(4:18). 이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길 권면했습니다. (e) 그들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덕을 세우되 특히 바울은 그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권면했습니다(14절). (f) 그들은 서로 화목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서로 화목하였지만 더욱더 서로 화목하길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했습니다(14절).

(3)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케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이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현대인의 성경) “사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 그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제 생각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1:7).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에 서로 사랑하되 더욱더 서로 사랑하길 기원합니다(마 24:12).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족이나 직장이나 회사나 어디에 가든지 간데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사랑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선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4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현대인의 성경)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는 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소망 중에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계 22:20).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현대인의 성경) “또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이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으로 보충해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10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12절).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에 견고히 서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길 간구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의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길 기원하였습니다. 그 준비란 데살로니가 교회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13절).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4:7).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거룩함입니다(3절).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1:10).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3:13, 현대인의 성경).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이란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의 결점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엡 5:27).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이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로 잘 준비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
 그 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
 그 날 밤 그 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새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1절, 4절, 후렴 가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굳게 믿어 굳게 서 있길 기원합니다(사 7:9).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굳게 믿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길 기원합니다(고전 16:13).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쳐야 하며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여러분 혹시 “미투(Me Too) 운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 고발운동으로서 ‘나도 당했다’라고 유명인들부터 일반인들까지 고백하고 고발하는 운동입니다(인터넷). 지금 미국은 이 미투 운동이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치계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도 최근 한 여검사의 성추행 고백을 시작하여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이른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 정치권, 경찰, 학교, 항공사 등 사회 전반에서 터져 나오는 모양새라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왜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이리도 많을까요? 왜 가해자들은 그녀들을 성추행부터해서 성폭행 및 강간 등을 행한 것일까요? 저는 그 원인이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음욕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에스겔 16장 28-29절을 보십시오: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할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영적 간음 행위를 거듭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할 수 없는 영적 음욕으로 하나님보다 앗수르나 바벨론을 더 의지하는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시대에도 적용을 한다면 사탄이 만족할 줄 모르는 음욕을 자극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불을 훨훨 타오르게 하여(잠19:24-29)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의 몸을 탐하게 만들어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탄은 교회 지도자들을 끈질기게 공격해서 음행의 유혹에 빠트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만들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뿐만 아니라(렘 9:14, 히 3:13) 우리의 얼굴도 철면피 같이 만들고(렘 6:28, 공동번역, 겔 2:4) 우리의 양심도 마비시켜서(딤후 4:2, 현대인의 성경)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구들 앞에서도 음행의 죄를 떳떳이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떳떳이 범하게 만들되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음행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를 받으면서도(또는 받은 후에도) 하나님께 음행의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벧후 2:14, 새번역).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음욕과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살전 4:3).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은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길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을 알려주었습니다(3절). 또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더럽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7절). 그러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1) 그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음란을 버리기 위해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호 5:4).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4절). 만일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볼 것이요[만족함이 없는 안목의 정욕(잠 27:20, 요일 2:16)], 그것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것입니다(마 15:19).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요 탐욕과 음란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아내도 탐하여 마음으로라도 간음을 하게 만듭니다(출 20:17). 또한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음란한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살전 4:3). 그 이유는 우리의 음란한 행위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호5:4).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욘 31:1). 그 이유는 눈의 욕심(요일 2:16),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잠 27:20). 사람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벧후 2:14).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광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면, 마음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 만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 여러분의 눈이 어떤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십시오. 똑바로 앞만 바라보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 여러분은 눈과 언약을 맺고 앞만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 거룩한 하늘만 주목하고 나가십시오”(존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고전 6:13).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18절).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20절).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우리 자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15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된 그리스도의 지체이지 창녀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15절).

(2) 그것은 불신자들처럼 색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혹시 “칠 악”(SEVEN DEADLY SINS)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칠 악”하면 1995년 작 “세븐”(SE7EN)이 생각납니다. 그 때 그 영화에는 유명한 배우인 브래드 피트, 모건 프리먼 그리고 케빈 스페이시가 출연하였는데 그 영화의 줄거리는 일곱 가지 원죄를 모티브로한 연쇄살인 사건을 보여주었는데 영화의 주제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곱 가지 원죄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인터넷). 여기서 말하는 그 일곱 가지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색욕”(LUST)입니다. 그리고 색욕이란 육체적 쾌락에 대한 무질서한 욕구를 말합니다. 성경 잠언 6장 25절을 보면 성경은 “네 마음에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너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욕을 품지 말며 그들의 눈짓에 흘리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음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악하고(24절) 음탕한(26절)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하고 그녀의 눈꺼풀에 흘려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파산하게 되며, 생명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26절, 박윤선). 지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창녀들의 아름다움을 탐하여 그녀들과 사귀므로 재물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성경 잠언 29장 3절을 보십시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 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욕을 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 잠언 6장 20-24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이네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않기 위해선 한 마디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참고: 3:1-3; 7:1-3).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보호해 줄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6:22).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며, 빛이기에 우리를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우리에게 “훈계의 책망”을 줄 것입니다(2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항상 새겨서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계집,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색욕에 빠지지 말라(현대인의 성경)]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색욕을 따르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로서 색욕을 따르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믿는) 신자들로서 색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능동적인 의미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믿는) 신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은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음란한 마음을 다 버리고 더 이상 색욕에 빠져 색욕을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하고 청결한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이란 육신의 순결을 추구합니다. 그는 아무도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잠 20:9, 현대인의 성경). 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럽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마 15:18-19)과 육체의 일들(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갈 5:19-21)로부터 자신을 깨끗케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시 51:10).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시 119:9, 현대인의 성경). 그는 눈이 정결하신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합 1:13).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고후 7:1).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마 5:8).

-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3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 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 (후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새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은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부부가 끝까지 신실하게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불륜으로 인한 부부 갈등과 결국에는 이혼하는 소식들을 가까이서 듣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더욱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저는 여태껏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에 관하여 3 성경 구절 중심으로 3번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 (1) 잠언 5장 8절: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보면 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멀리해야 할

여자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인 “음녀”[“방탕한 여인”(현대인의 성경)]입니다(3절). 성경이 음녀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를 가까이 하면 “나중에 쓰라림과 고통만을 남겨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 물론 처음에는 그럴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서 처음에 쓰라림과 고통을 맛보면서 계속해서 불륜의 관계를 지속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은 나중에 쓰라림과 고통만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음녀를 멀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면 “네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에 되고 너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낮은 사람들이 네 재물로 배를 채우고 네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9-10절). 실제로 불륜의 관계로 인하여 영예와 재물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남자는(6:29) 그 여자의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면 그 남편은 복수할 것이며 결코 자기 아내와 통간한 남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34절). “아무리 많은 위자료나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가 받지 않을 것”입니다(35절). 질투함으로 분노하는 남편이 자기 아내와 통간한 남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또 다른 이유는 그런 여자를 가까이 하면 “결국 네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5:11):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고 어째서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는가? 내가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12-14절, 현대인의 성경). 실제로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훈계하고 책망을 하면 듣습니까? 성경 잠언 6장 27-2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마치 불을 품에 품은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은 그 불이 남의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불이 자신의 부부 관계와 가정에 상처와 모욕과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주므로 망치지 않습니까?(참고: 32-33절, 현대인의 성경).

(2) 전도서 7장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이 말씀을 보면 불륜의 맺는 이유는 바로 탐욕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모세의 10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이 적혀있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우리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잠 5:19). 그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다른 여자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그녀에게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아무리 많은 여자를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릅니다(전 1:8). 탐욕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사 56:11).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으로 꺾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벧후 2:18). 죄를 짓게 하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여인을 탐내게 합니다.

(3)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현대인의 성경)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륜의 관계를 맺는 이유가 바로 부부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부부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부부도 피차 용서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에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부가 피차 용서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주님께서 그 부부를 용서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에 피차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부부는 서로를 향하여 불만이 있고 또한 그 불만이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부부는 서로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지 않는 부부는 진심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 부부는 서로 용서하기를 이미 마음으로 거부(거절)한 사람들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쌓인 많은 불만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 하므로 부부 관계가 많이 악화된 부부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미성숙하여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 부부들, 서로의 문제와 갈등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려는 힘든 노력보다 문제와 갈등이 굶도록 그냥 넘어가든지 내버려 두는 편안한 길을 선택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부부의 한 몸 됨을 지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방어막을 쳐서 자기는 옳고 내

배우자는 틀렸다고 비난하므로 계속해서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부부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부부들,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된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부부와 비교하면서 그 다른 부부를 질투하는 부부들,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공상을 하다가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눈이 맞아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현대인의 성경)[(개역개정)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더욱 힘써 그렇게 살도록 하라고 권면하면서(1절) 음란을 버리고(3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5절). 그러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들에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4절). 현대인의 성경은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들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들의 아내를 대할 줄 알 때에 그들은 음란을 버릴 수 있고 또한 색욕을 따르지(색욕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관점을 말한다면, 부부가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슨 음란과 색욕을 따르는 죄를 범하는 유혹에 눈길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 남편들이 먼저 음란을 버리고 색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아내를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말한다면 깨끗한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깨끗한 마음”이란 거룩한 마음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남편들이 먼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추구하면서 아내들도 그러한 마음을 추구한다면 우리 부부들의 생활이 어떠하겠습니까? 더욱더 성화되고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깨끗한 부부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부부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부부 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결혼 10주년 때 읽게 된 DR. EMERSON EGGERICHS가 쓴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때 그 책을 읽으면서 귀한 도전과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과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그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Crazy Cycle). 그만큼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남편이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십시오”(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무”란 성적 의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므로 음란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성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의 특권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서로의 성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는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몸은 우리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 몸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4절).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육체적 순결을 추구함에 있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신념이란 금욕주의적인 것으로서 결혼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안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결혼한 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부부의 성관계를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각방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절). 그것도 얼마 동안만입니다. 그리고는 부부는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5절). 이것이 바로 부부가 합방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남편이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한다는 말씀은(살전 4:4) 남편이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의 몸도 존귀하게 여겨 그녀에게 자신의 성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되 그의 몸도 존귀하게 여겨 그에게 자신의 성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의 몸을 존귀하게 여겨 서로의 성적 의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서로의 성적 필요성을 충족하게 할 때 그 부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색욕을 따르지 않고 음란도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데 더욱 많이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부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존경할 때에 그 부부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를 거룩(깨끗)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되 각자의 몸도 깨끗(거룩)하게 하여 서로의 몸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향한 성적 의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므로 모든 음란과

색욕을 따르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부부는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은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충돌이 일으켰을 때 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예를 들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젊어서 취한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라(잠 5:18, 19)고 말씀하고 계신데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아내를 원(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물어보나 마나라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탐심(욕심)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아내를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충돌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주로 우리가 말하고 믿는 데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분수가 넘치는 욕심(탐심)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은 우리 욕심대로 행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욕심 따라 행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리 행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믿고 말한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위선이 들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의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파)를 짓고(1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3절)라고 거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거스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시기함에서 나온 것으로써 레위 자손들 자기들도 제사장 직분을 탐냈던 것입니다(박윤선). 왜 레위 자손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탐냈습니까? 그 이유는 레위 자손들은 자기의 직분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9절). 결코 레위 자손들의 직분도 작은 일이 아닌데 그들은 작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더 크게 보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탐했던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 그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들은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여 분수에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분수에 넘치는 말을 하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수에 넘치는

발언과 더불어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개역개정)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자신들의 결혼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교회 형제들을 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BELIEVER'S BIBLE 주석).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결혼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다른 교회 형제들을 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을 염두해 두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다른 형제들의 아내를 가로채는 것을 염두해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더욱 많이 힘써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기위해선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일로서(6절)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이미 경고했었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주님께서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사람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6절하,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니, 어떻게 남의 아내를 가로챌 수 있을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가 교회 형제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어느 기독교 웹사이트를 보니까 남성 목회자와 여성 교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회 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의 성폭력에는 ‘패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패턴을 분석하고 예방법을 제시한 기사인데 그 패턴이 한 6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 고르기라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을 분석하면, 평소 목사와 피해자는 1대 1로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던 사이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 생존자들은 "상당할 때는 자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약점을 다 털어놓게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2) 이렇게 접근 대상을 선정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그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고, (3) 세 번째 단계는 욕구를 충족해 주는 작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4) 그리고 피해자와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인 ‘둘만의 비밀’이라는 말로 피해자를 고립시킨다고 합니다. (5) 그런 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때 다섯 번째 단계인 성 접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대리해 온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 세상)는 "처음부터 격한 스킨십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경미한 성적 접촉이 반복되다 '한 번만 키스해 주면 내가 괜찮을 것 같다'고 목사가 말한다. 피해자는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셈치고 응한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목사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럴다', '잠도 안 오고 미칠 것 같다'는 말로 피해자를 또 불러내고, 더 심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 그러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성적 관계가 된 뒤 가해자는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통제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해서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성경 구절을 늘어놓는다.”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목사를 따랐던 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폭행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랑하는 사이였다’라고 등 말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 △다들 네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쓰러지실 것이라는 말 등으로 폭로를 막는다. 이렇게 통제받는 상황이 지속되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받는다. 피해를 당하고도 공범자라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다가, 심한 경우 자해나 세상과 단절하기를 택하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배후자를 탐내어 최악 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그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므로 결국에 가서는 분수에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개역개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9-12절]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더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습게보며 경멸까지도 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더 높일 때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경멸이 형제간의 일치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처럼,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은 가장 잘 커가는 것이다.” 성경 로마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현대인의 성경) “형제처럼 서로 따뜻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또한 서로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서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빛을 발하며 사랑의 향기를 들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 사랑에 관한 바울의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교훈을 받아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현대인이 성경)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교훈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를 통해 한 2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

(1)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빛을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빛은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8절). 그러나 동일한 성경은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전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빛을 질지라도 약속한 대로 양심 것 다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말하였습니다(7절). 만일 우리가 빛을 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양심 것 빛을 갚아야 합니다.

(2)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입니다(9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요 14:21).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합니다(15:12).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을 사랑하였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3:12)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서로 사랑했습니다(4:9). 사랑하되 그들은 특별히 자기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5:12-13).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았습니다(14절). 또한 그들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랐습니다(15절).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바울은(1:2-3) 그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치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3:12). 여기서 제가 던졌던 질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랑(God's chosen love)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말했습니다(10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힘써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가 더욱 힘써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요 15:12).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14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13절). 우리는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친구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죄인이요(롬 5:8) 원수 된 자들(10절)을 사랑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큰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8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되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마 5:46)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도 사랑해야 합니다(44절). 우리가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므로 예수님의 사랑 비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요 15:10)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신적)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11절).

마지막 둘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부자가 되기를 힘쓰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 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게 더 중요합니까? 성경 잠언 28장 6절을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급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현대인의 성경)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자가 거짓된 부자보다 낫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애쓰기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길로 행하는 부자들이 되면 아니 됩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선한 길을 가는채 하면서 실상은 악한 길로 행하는 부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급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19장 22절 새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며 손수 일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하였는데 이 명령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형제를 더욱 힘써 사랑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명령을 한 3가지로 나눠서 목상해 보았습니다:

(1) 바울의 명령은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조용한 삶, 잠잠한 삶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을 참견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명했습니다(12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일에 참견하여 문제를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2) 바울의 명령은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까운 재림을 믿고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 어떤 형제들은 일을 중단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의 일을

참견하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규모 업는 자들은 자기의 하루하루 삶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세금(돈)을 뜯어내므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문제만 일으켰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형제들의 일에 참견하여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3) 바울의 명령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기를 싫어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했습니다(살후 3:10).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였을 때(살전4:11) 그는 이미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줬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고생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insula”(위층에서는 머무는 곳이며 아래층에서는 일하는 곳)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김세윤).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였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규모 없이 다른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안겨주므로 자기의 하루하루 삶의 필요한 것을 채우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개역개정)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명한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일하므로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마 16:18)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승리장로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더 힘써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우리는 조용히 우리 각자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 손으로 열심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것이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21절]

영국 기독교 신문 크리스천투데이의 칼럼니스트 앨라나 프랜시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후의 삶에 대한 성경구절 11가지(What the Bible has to say about life after death in 11 verses)"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랜시스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 마지막 소원과 장례 계획을 이야기한다고 말하면서 죽음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중 대다수는 실질적으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랜시스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불편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한다. 죽음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대화는 대부분 부정적인 결말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에 관한 또 다른 밝고, 희망적인 관점이 있다. 죽음은 많은 것들의 종말을 맞이하게 하겠지만, 지상의 삶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랜시스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죽음 이후 약속된 삶을 보장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을 약속받았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죽음을 앞둔 존재로써,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며,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죽음은 실제로 영생으로 인도하며, 죽음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역을 비교하면 개역개정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원어 헬라어의 뜻에 더 맞는가하면 바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의 성경은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는 자들”이란 바로 “이미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3절) 죽은 줄을 아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현대인의 성경)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12절). 예수님께서서 그리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13절).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14절). 이렇게 성경에선 예수님께서서 이미 죽은 자를 가리켜 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외에도 몇몇 성경 저자들도 죽은 자를 가리켜 자는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리 표현하는 것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행 7:60). 사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가리켜 자는 자라고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말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현대인의 성경)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소?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소?” 하고 말할 것입니다”(벧후 3:4).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제일 많이 표현한 성경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6, 18, 51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로 여러 번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지만 16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4장 9-12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말한 후 오늘 본문 4장 13-21절에서는 “자는(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5장 1-11절에 가서는 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하여”, 즉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 즉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하여 편지를 써내려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그들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4:13).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 없는 다른 이”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외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비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소망(희망)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합니다(고전 15:32). 그래서 그들은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면서 평안히 쉬고 즐거워합니다(눅 12:19; 17:27). 그 이유는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신자들은 죽음이 끝이고 죽음 후의 세계를 믿지 않기에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소망이 없는 슬픔을 겪는 것입니다(살전 4:13).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왜 슬퍼하지 말아야 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21절 말씀 중심으로 “**자는 자들에 관하여**”란 제목 아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지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고전 15:12).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13, 15, 16절).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바울이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요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것입니다(14, 17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입니다(15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18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제일) 불쌍한 자들입니다(19절).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3-4절).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세 안식일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세 주간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이십니다.' 하고 증거하였다”(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그들 중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또 수많은 경건한 그리이스 사람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믿었”습니다(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상반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나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죽은 사람(성도)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소망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13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현대인의 성경)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8절, 현대인의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고전 15:3-4)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롬 6:23). 그러므로 이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우리 몸의 속량(구원)”을 받는 것입니다(롬 8:23).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2-53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로마서 8장 24-25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지막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8:24).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25절).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였습니다(살전 1:3).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10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5절) 이르기 전(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9절).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선택하시어(4절)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2:12). 그러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님 앞에서 바울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19-20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인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도의 죽음을 접할 때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4:13). 그 이유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14절). 더 나아가서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슬퍼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14절). 한 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습니다(롬 12:12).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간구하였습니다(3:13). 바울이 이렇게 간구한 이유는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4:3).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기(7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섹욕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4:3-5).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바울은(1:2-3)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4장 13-14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에 관하여 소망 없는 모든 비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고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16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먼저 부활한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먼저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셔서(살전4:14) 그 때까지 살아 있는 성도들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17절). 그리고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는 성도들이나 모두 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17절). 그러므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했습니다(18절).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잠겨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홀연히 변화 받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확실하고 분명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 약속된 삶을 보장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죽음을 앞둔 존재로써, 가족이나 친구들을 떠나보내야 하며,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아있는 성도들도 홀연히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0절]

성경 로마서 13장 11절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란 바로 주님의 재림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구원의 때가 가까왔다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왔다는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의 때, 즉 우리 구속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가 가까왔다는 뜻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란 바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란 지금은 최악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란 뜻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 만큼 최악이 극도에 이르는 때입니다. 이것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다는 말씀입니다(12절).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때와 시기”(1절)란 “주의 날”(2절), 즉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지금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 날에 대하여 그들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한 이유는 이미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가르쳐주었기에(WBC) 그들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1:9-10).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은 어둠에 있는 자들(5:4), “자는 자”(7절),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마치 해산할 여자에게 고통이 닥치듯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마음 놓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칠 것이며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4절, 현대인의 성경)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여(3절) 밤에 자고 있을(7절) 그 때에”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는 것입니다(3절). 여러분, 자매님들은 임신 중에 있을 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르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어둠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멸망이 갑자기 이를 때에 어둠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결코 그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기사 아삽이 시편 73편 18-20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은 악인들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현대인의 성경)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파멸에 밀어 넣으시므로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릅니다.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악인의 종말입니까? 주님께서 악인들을 파멸에 던지시므로 악인들은 갑자기 황폐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순식간에 멸망하여 끔찍한 종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악인들의 형상을 멸하시므로 그들은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불신자들은 주님의 임박한 재림과 심판을 믿지 않기에 마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처럼(마 24:38) 어둠에 있는 불신자들은 먹고 마시고 밤에 취하고(살전 5:7) 결혼하면서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것입니다(3절). 그렇게 그들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3절, 현대인의 성경) 밤에 자고 있을 때(7절)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것입니다(2절). 결국 어둠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은 마치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한 것처럼(눅 17:27) 그들은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살전 5:3).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에게는 주님의 내림의 날은 불신자들의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택하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택하신(1:4) 목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5:9). 그리고 그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10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4:14)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살아있던지(“깨어 있든지”) 아니면 죽어있던지(“자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진리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의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5:4)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5절)이므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4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5절)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 3가지로 권면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도 밤에 마시고 취합니다(7절). 한 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4절) 밤에 자고 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했습니다(8절). 그러므로 성경은 낮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에게 오직 깨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

8절).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2 가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1)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현대인의 성경)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2)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준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1-14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 된 생활을 하십시오.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개혁한글)(살전 5:6, 8).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박윤선). 성경 누가복음 21장 34-3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닳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아감에 있어서 무장을 할 때에 그들의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 바로 흥갑 또는 호심경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붙이라고 한 호심경은 2가지였습니다: (1) 하나는 바로 ‘믿음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길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늘에서

강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1:10)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4:14). (2) 또 하나는 바로 ‘사랑의 호심경’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라고 말하고 있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란 로마 군인들이 쓰고 있었던 머리에 쓰는 투구를 생각할 때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머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무장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11절)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13절).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전신 갑주 중 하나가 바로 “구원의 투구”을 쓰라고 권면했습니다(17절).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라고 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살전 3:13)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화”란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것으로 미래적 구원입니다(인터넛). 이 미래적 구원인 영화의 뜻은 (1)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고전15:44), (2)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것(53절), (3) 영원히 사는 몸을 입는 것(살전4:17), 그리고 (4)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인터넛).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저와 여러분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2가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입니다(5:2).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입니다(3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게 미혹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과 더 이상 썩지 않는 몸과 더 이상 죄도 모르는 거룩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15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입니다(마16:18).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로 각자의 기능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일꾼을 세워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비전)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 파송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을 세우시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3가지의 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인터넷): (1) 사람의 성품으로서의 덕이고(빌 4:8), (2) 하나님의 덕이며(벘전 2:9; 벘후 1:3), (3)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 세워나가는 덕입니다(고전 14:3-5, 12, 17, 26).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덕”은 세 번째 의미인 공동체적으로 세워나가는 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현대인의 성경) “이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고전 14:26).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3-5절).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헬라어 의미는 ‘집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건축자들이 집을 세우는 과정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위한 포인트 10가지”란 제목 아래 인터넷 글이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그 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위한 포인트 10가지를 보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설계인데 글쓴이의 주장은 설계가 집짓기 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설계가 좋은 집짓기의 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언급하고 있는 나머지 9가지 포인트 중에 저에게 좀 관심이 갔었던 포인트는 바로 8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글쓴이의 주장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마땅히 안전하고 편해야 한다는 것과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집을 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위한 포인트 10가지 중에 1번째와 8번째를 생각할 때 제 대학 후배 설계사 형제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그 형제가 저희 부부를 도와 집 뒤에 장인, 장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방 하나와 화장실을 설계해 주었는데 아주 꼼꼼하게 마음과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감사해서 왜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정성 등을 들여서 설계를 해주고 도와주고 있냐는 식으로 물었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저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후배는 저를 형으로 생각하고 제 아내를 형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 가족이 살 집처럼 생각하고 설계를 그려준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저는 이 외에 집을 짓는 과정을 생각할 때 전에 설교하면서 언급한 한옥을 짓는 과정에 꼭 필요한 그레질이 생각났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에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바로 주추를 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추란 기둥 밑에 괴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 주추를 다 놓으면 그 때서야 기둥을 세우는데 바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일(창방)을 하며 집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울 때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질입니다. 여기서 그레질이란 주춧돌은 보통 자연석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넓고 평평한 돌을 골랐다고 해도 기둥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기에 주추 위에 기둥을 세우려면 주춧돌의 면과 기둥의 면이 잘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선 작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레질입니다. 그레질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주춧돌에 맞게 깎고 갈아 내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주춧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깎고 다듬어 주추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준은 기둥이 아니라 항상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질을 잘 하면 할수록 집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진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한옥을 지을 때 이 그레질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적용함에 있어서 영적 그레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영적 그레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마 7:24). 다시 말하면, 영적 그레질이란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2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음에 있어서 기준이 기둥이 아니라 주춧돌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준은 바로 주님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마치

주초가 기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동이 주초에 맞춰야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보면 주님의 뜻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5절 중심으로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할지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수고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시사저널”에서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총 30개 분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한 글과 사진들이 있어 좀 읽어보았습니다(인터넷). 그 기사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인가 보았더니 제 1위는 순복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 2위로는 사랑의 교회 고 옥한음 목사님, 3위에는 명성 교회 담임 원로 목사님인 김상환 목사님, 4위로는 고 한경직 목사님, 5위로는 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읽으면서 한 2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 받는 분들 성향을 보니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신데 소형교회나 중형교회나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존경 대상에 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는 그저 설문조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든 생각은 가장 존경받는다고 조사된 순복음 교회 원로 목사님이나 명성 교회 원로 목사님은 인터넷 기독교 뉴스에 이런 저런 문제로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때 한 때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분이 지금은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을 볼 때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회의가 듭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말한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 두 종류의 장로들이란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 TE)와 “치리하는 장로”(Ruling Elder, RE)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장로”란 목사를 가리키고 “다스리는 장로”란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너희끼리 화목하라”[(현대인의 성경)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는 것입니다(살전 5:13). 이 말씀은 꼭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님들과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같이 보이지만 제 생각에 그보다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 권면한 이유는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그것이 부모님에게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성도님들이 존경할 만한 교회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듯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십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라고 답하실 목사님이 있으십니까? 저는 성도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나 교회 성경공부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악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언젠가 YMCA에 운동하러 갔다가 벽에 걸려 있는 액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 lie has speed; but the Truth has endurance”(거짓에는 스피드가 있고 진리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 글을 보고난 후 토요일에 글을 쓴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제가 그 주 수요기도회 후 진리의 말씀을 속히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에는 스피드가 있다는 말에 동의하게 된 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수요기도회 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인 목요일 새벽에도 깨어서도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으로는 이웃에게 분노하면서 그 이웃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 속에서 사단의 거짓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있었을 때 그 속도도 무섭게 빨라지만 제 마음에 참을성이 고갈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무서운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날 새벽기도회 때 이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자백한 후 개인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놀아나는 제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 저는 그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시달리던 저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거짓과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니 마음이 평안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편지를 머릿속으로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더욱더 사랑하기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위로하는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에는 참을성이 있는데… 진리에는 인내가 있는데…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는데 재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중 “사랑은 오래참고”(4절) 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 가족 식구에게도 오래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 또 참아야하는데 사랑하는 가족 식구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입으면 참고 또 참다가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고 또한 용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민수기 14장 11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모세에게 “어느 때까지 …”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거듭 거듭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해 주심 등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 또 감사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듭 내었던 소리를 바로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울면서까지 원망의 기도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27절).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음”이란 영어 성경에는 “longsuffering”(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단어는 Pain(고통)과 Patience(인내)라는 의미가 같이 있다고 합니다(Wayne Stiles, “Waiting on God”).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있는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래 참고 또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래 동안 우리의 거듭 범하는 죄를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사 온갖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셨으면 독생자 예수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부르짖음도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 범하는 죄들을 보시면서 어느 때까지 참고 계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 이웃에게 오래 참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4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 바울은 그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 성경 잠언을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잠10, 12, 13장 등) 그 말씀의 요점은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게으른 자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손을 게으르게 놀리고 있기 때문에(10:4)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게으른 자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21:25).

그러면서도 게으른 자는 오히려 일을 만듭니다. 어떻게 게으른 자는 일을 만듭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즉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여 일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젊은 과부는 오히려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망령된 평론을 하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므로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살후 3:11). 이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의 일을 참견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하루의 삶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들에게 세금(돈)을 뜯어내므로 형제 사람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12:11).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 지난주에 읽은 인터넷 기사 중에 “칭찬보다 소중한 격려”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을 보면 “격려”란 단어는 영어로 ‘encouragement’인데 여기서 “courage”는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a willingness to make an effort)’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려는 무엇인가를 시도할 의지가 생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좌절(discouragement)은 이러한 의지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격려는 용기를 주는 말이고, 미래를 향한 도전 의지를 높이는 것입니다(인터넷).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중 마음이 강한 자들은 염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여 잘 견뎌내며 이겨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자들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충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근심 걱정 속에서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는 격려해야지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을 열심히 잘해도 욱먹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왜 욕하고 비판하고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잘하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설상 우리가 보기에 일을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수군수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 자세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3)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 교회 안에 마음도 약한데 힘까지 없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는 그/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격려할 뿐만 아니라 붙들어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붙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붙들어 주시길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이 없는 그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므로 붙들어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그 형제, 자매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그 형제, 자매의 힘이 없는 마음을 다시금 힘주고 소성케 해줄 수 있습니다.

(4)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선 교회 식구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고 참아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의 본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가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농부의

인내심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우리도 사랑의 씨앗을 심고 또한 농부가 열매 맺기를 인내심으로 기다리듯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되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점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 된 형제, 자매에게 분노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참고 참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19장 11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특히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심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his unlimited patience)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인내로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이 참아주심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교회가 화목한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언제나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선호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또한 우리는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하므로 고난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현대인의 성경)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비록 우리는 선을 행하나 상대방이 악으로 우리에게 갚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외롭지만(시35:12)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살후 3:13).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시 34:14).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현대인의 성경)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언제나 선을 추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2가지를 권면했습니다:

(1) 바울은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악을 행해서도 아니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엡 2:10).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밖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 때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살전 5:15, 롬 12:17). 상대방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고 우리도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 3:9). 그 이유는 우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9절). 우리는 복을 빌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에게도 말입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9절).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도 포함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까지 포함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 선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깨달았기에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한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보살펴 주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21절).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시 34:8) 자기를 해하려고 한 형들에게도 선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시 34:8)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를

해하려 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우리를 해하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에게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요셉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 식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에게도 항상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시다는 진리를 믿음으로(롬 12:2)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롬 8:28)의 선하심을 맛보므로(시34:8) 우리가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살전5:15).

승리장로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겸손히 순종하므로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하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사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22절]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워드 헨드릭스 목사님은 그의 책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힘든 일이 닥치면 포기해 버리든지 또는 그 일이 성공하게 되면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가로챌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곤 합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역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금 겪게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 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저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6-17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므로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 아래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 5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쁨보다 근심, 걱정, 우울 또는 슬픔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접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쁨에 관하여 생각할 때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제 삶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자문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과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가?’도 자문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문맥에 근거해서 한 3가지로 묵상했습니다:

(1)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듣고 또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율법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들의 죄가 들춰지므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 죄의 자각이 있으므로 울었습니다(스 10:1).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각으로 인하여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2)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느헤미야8장 10-11절을 보십시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중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왜 수문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했던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 잘 모르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Packer). 근심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들춰지므로 근심할 수 있고 또한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므로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깨닫게 했던 레위 사람들을 권면을 듣고 슬픔과 눈물과 근심을 그치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12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상을 섬기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많은 환난(1:6)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환난 중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바울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원리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 데살로니가인들은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던 데살로니가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4절). 그랬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5절).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은 많은 환난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포한 것은 유대교가 아니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시민들을 총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자의 강패들까지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로마 관원에게 고소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김세운). 그런 와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KJV 성경 주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2:13).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13절). 그랬기에 그들은 많은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슬퍼하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십니다. 그 결과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말씀으로 빛으시사 거룩케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1:6).

(3)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견디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잠 10:28; 롬 12:12).

(4) 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보았습니다.
그가 많은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2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빌 4:1). 바울에게는 이러한 기쁨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살전 5:16).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몇 주 전 새벽기도회 때 시편 10편 17절인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간절히 기도케 하셨습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그날 그 새벽에 제 마음의 간절히 소원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제 소원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하시므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시 10:17).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2절), 우리가 무기력해져 있을 때(9, 12절) 우리가 외로울 때(14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17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18절).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간구를 아뢰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3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1) 우리는 구원(건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55편 16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견지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그 상황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어야 합니다(롬 8:28).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그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예수님(뜻: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55편 17절을 보십시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매우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기도하는데 낙심까지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눅 18:1) 우리는 낙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실제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55편 22절을 보십시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영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벧전 5:7).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7절).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시 55:22). 성경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반복해서(repetitiously)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고 휴식이 없이 계속해서(continuously)라는 말이 아니라 끈기 있게(persistently) 그리고 정기적으로(regularly) 기도하라는 뜻입니다(MacArthur).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든 것이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와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접한 힘든 상황은 지속되고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 될 때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어떻게 사탄은 우리를 현혹합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현혹하는 지름길(deceptive shortcut)을 제안합니다. 그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므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2) 우리가 그리도 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하며 기다리기보다 사탄이 보여주는 지름길을 선택하여 빨리 얻든지(그러나 이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처음부터 다시 뒤돌아보면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는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을 기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리할 때 저는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빌립보서 1:8)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2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잠언 17:9)]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역사)을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데살로니가전서 1:3).”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 권면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4:9)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것처럼(1: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하기 때문입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성경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부탁대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12:23). 사무엘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을 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사도행전 2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고(롬 1:9) 또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위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그를 생각했습니다(딤후 1:3).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드렸을 뿐만 아니라(살전1:2) 그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했습니다(3:10, 현대인의 성경).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 간구한 이유는 그들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3절). 바울은 그들이 환난 중에 시험하는 자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려서 바울 자신의 수고가 헛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5절).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5:6). 우리는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박윤선). 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현대인의 성경)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눅 11:4,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끈기 있게,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되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감사 기도가 나오십니까? 만일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가족 식구들입니까? 교회 식구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1:2).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3절):

(1)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란 3가지입니다:

- (a)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5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9절).

- (b)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6절).
- (c)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것입니다(8절).

(2)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란 3가지입니다:

- (a)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4:18).
- (b)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5:11).
- (c)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13절).

(3)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란 2가지입니다:

- (a)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1:10).
- (b)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3:13)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in everything)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상황(in every situation)이나 모든 환경(in all circumstances)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WBC).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나쁜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좋은 예가 바로 요나 선지자라 생각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욘 1:17). 그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2:2). 그는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3절). 그는 주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4절). 그의 생명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7절). 그는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습니다(6절).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1, 9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 선지자가 기억한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1:15)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므로 그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17절). 이것이 바로 요나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요나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가 기대했던 구원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2:10).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 구원은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2:1, 9).

우리 기도의 응답이 우리 기대대로 현실화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현실화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9절)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과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히 13:8)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게 하셨습니다(욘 2:10).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상황은 드디어 변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아닌 육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9절).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잠17:9)]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역사)을 보기 때문입니다(살전 1:3).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현대인의 성경)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염려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감사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 한 부분인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으로 그것을 고백하며, 모든 좋은 것을 그의 선하심에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생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조건은 구원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시금 헌신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20절을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타는 불에 물을 끼얹어 본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타는 불에 물을 끼얹는 것인가요? 그 이유는 불을 끄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불을 끄지 않고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휘발유를 쏟아 붓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캠핑을 가서 밤에 모닥불을 피울 때 나무를 모아 놓고 그 나무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휘발유를 뿌린 나무에 불을 붙이며 얼마나 활활 나무가 잘 타오릅니까? 그렇게 모닥불을 피고 놀다가 우리가 잠들기 전에 그 모닥불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모닥불을 끄기 위해서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되 우리는 혹시나 작은 불씨가 있을까봐 확실하게 불을 끄기 위해서 충분한 용량의 물을 모닥불 위에 붓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은 마치 타는 불을 끄듯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새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신여”란 찬양 가사 하시죠? 그 가사 1절과 후렴은 이렇습니다: (1절)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후렴) “성신이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불길 같은 성신”이라는 표현과 그 불길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리 표현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여러 상징적인 명칭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물, 바람, 기름, 비둘기). 성령님을 불로 묘사한 성경구절 중 마태복음 3장 11절과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 3:11),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행 2:3). 이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사도행전 2장 3절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을 상징하는 “불”의 역할은 성령 세례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다 태우는 역할을 하고 성령 충만에 있어서는 성령의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성경구절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먼저 사도행전 2장 3절과 연관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한 의미는 성령님의 은사를 존중히 여겨(박윤선) 그 성령의 은사를 억압하거나(억누르거나)해서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을 제안하거나 저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Believer’s Bible 주석).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1절과 연관할 때 바울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한 의미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더럽게(부정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남의 아내를 가로채지 말고(6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말입니다(7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한 것입니다(3:13).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를 소멸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주어진 성령님의 은사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사를 억누르지 말고 성령님의 행하시는 일을 제안하거나 저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의 은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데 지혜롭고 절제 있게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드는 생각은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 중 잘못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적인 소망 가운데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을 참견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4:11). 왜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있었습니다(3절, “소망의 인내”). 그런데 그렇게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중에 어떻게 잘못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예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예언을 전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여기 미국 Los Angeles에 1990년대 초반에 마라나타라고 해서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의 날로 굳게 믿고 그 시간이 밤 12시 자정이라고 해서 소동 아닌 소동이 난 적이 생각납니다(인터넷). 그 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거짓 예언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휴거를 한다고 막 떠들 석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거짓 예언을 매우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어떠한 위험이 있는가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언을 하잖게 여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잘못된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할지라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MacArthur). 특히 바울은 그들이 바울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을 감안하고(살전 2:13)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했다고 생각합니다(5:20). 물론 거짓 예언자(선지자)의 거짓된 예언은 멸시해야 하지만 참된 예언자(선지자)의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때”란 바로 장차 일어날 예언의 성취입니다(Believer’s Bible 주석). 그리고 그 예언이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가리킵니다(1절). 그리고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초점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4, 8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십니다(5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6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7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현대인의 성경). 그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찢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계 1:7). 그리고 세상에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슬피 울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7절). 그 이유는 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심판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MacArthur).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죄책감과 심판의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5절). 오히려 우리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충만한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요 3:29). 그러므로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 교회는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계

22:20).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음성인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20절).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1:3).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되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22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써 건강관리를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우리 몸에 무엇이 유익(이익)이 되고 무엇이 해(손실)가 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 후 우리는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유익이 되는 것은 취해야 합니다. 마친 가지로, 우리는 우리 영적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관리를 신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우리 영적 건강에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구분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취하고 해가 되는 것은 배설물(쓰레기, 똥)로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빌 3:7-8).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7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취하고 유혹하는 자의 유혹들을 뿌리쳤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떠한 악한 것들을 버렸습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취하고 불신을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불신자 때) 우상을 섬기면서(1:9)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않았습니다(4:5). 오히려 그들은 유혹자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3절). 한 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유혹을 버리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3:8) 요동치 않았습니까(3절).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불만족합니까? 그 원인은 욕심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한 분 만으로 자족하지 못하게 하고자 욕심이란 영적 암세포를 우리 안에 침투시켜 결국 불만족과 불평, 원망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 범죄는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롬 10:17) 순종하여 살아 있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을 취하고 불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을 버리기 위해선 믿음을 부지런히 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불신을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2)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취하고 미움을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인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5:12-13).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였습니다(4:9).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도 사랑하였습니다(10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결코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았습니까(6절). 오히려 그들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아무 할 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였습니다(9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요일 4:8). 그러나 사단은 거짓입니다. 사단은 거짓된 사랑인 미움이라는 영적 암세포를 우리 안에 침투시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신 1:27)는 거짓된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랑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차가운 사람들로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랑(God's chosen love)을 더욱더 깊이, 넓게, 많이, 높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많고 많은 죄인들에 우리는 택하시사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케 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체험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사랑으로 사단의 최악 된 미움을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3)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취하고 절망을 버렸습니다.

비록 환난 중에서 형제의 죽음을 통하여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절망 속에서 슬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4:13)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14절) 예수님의 재림 때에(1:10)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심을 참고 기다렸습니다(4:14).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남은 자들도 잠자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주님을 영접하므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17절, 5:10) 소망 가운데서 모든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전하시기를(5:23) 소망하면서 모든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난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낙망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절망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는 것입니다(롬 12:2). 비록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복음 성가 가사 2절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인터넷).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어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24절]

지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하면 우리의 마음이 저 천국에 있지 못하고 이 땅에 있으므로 위에 것을 생각하며 그곳에 보화를 쌓아 놓기보다 이 세상에 쌓아 놓기에 분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땅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세상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또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믿음의 삶이요 소망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떠나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 할 것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다 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고전 1:8). 이 얼마나 귀한 감사 기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히 믿음에 서 있을 것을 확신하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항상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귀한 감사 기도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될 줄을 확신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대답을 저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찾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하신(미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부르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케 하실 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와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시작한 구원의 역사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마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비록 우리는 불성실하시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딤후2:13).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을(엡 1:4) 부르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MacArthur).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을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소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것도 그들만을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본질상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구원 적으로 마음을 밝혀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또한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결심하게 하시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이 지극히 자유롭게 오는 것과 같이, 그분의 은혜로 기꺼이 하도록 하신다”(인터넷). 이 신앙고백을 3 부분으로 나눠서 성경구절을 나눕니다:

(1)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그것도 그들만을
정하신 때에 기꺼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성경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정론이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나 지옥을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전 뿐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정론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R. C. Sproul). 성경 에베소서 1장 4-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2)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은 먼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중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 받았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엡 2:1). 따라서 하나님을 찾거나(고전 1:20)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며(요 1:12,13) 영적 선을 행할 수도 없다(시 14:3).
중생은 이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를 가리킨다(고후 5:17)”(인터넷). 이러한 성령의 중생의 필연적
결과로 뒤 따르는 것은 회심이요 이 회심에는 회개적 요소와 신앙적 요소가
있습니다[“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살후 2:13)].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소극적 요소이다. 반면 신앙은
회개에 뒤이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적극적

요소이다”(인터넷).

(3) “그들이 본질상 속해 있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으로 부르신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르심’에 대해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4장 7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먼저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왜 바울이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는지(11절)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을 영광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백성답게 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3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들의 아내를 대하지 않고(4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에 빠져(5절, 현대인의 성경)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6절, 현대인의 성경)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6절).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7절). 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두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삶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까? “성도”의 의미는 “거룩한 무리(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도쉬”와 헬라어 “하기오스”란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자르다”, “분리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거룩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사물을 신성한 사용을 위해 구별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에서 사용된 물건을 “성물”(거룩한 물건)이라 불렀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직을 “성직”이라고 불렀습니다(인터넷).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구별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인 우리 안에 거룩한 영(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 즉 거룩한 무리(구별된 무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인터넷). 성도답게 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2절(특히 16-22절)의 권면의 말씀을 다 마친 후 오늘 본문 23절부터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 그들을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 속에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화라는 것입니다(MacArthur). 바울은 그 성화를 미쁘신(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23-24절).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이 일”, 즉 “성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2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1) “이 일”이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함(성결)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레 19:2). 이 명령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별되시듯이’우라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인터넷).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3장을 보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2.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今生)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인터넷). 이 신앙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전서 5장 23절 상반절에서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성화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분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평강(평화)의 근원이시며 또한 평강(평화)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듣게 하시사(엡 6:15)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롬 5:10).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주님(미 5:5)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케 하시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이 평강을 이루는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빌 4:6-9)(주석). 결국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므로(살전5:23)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빌4:9).

(2) “이 일”이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삼분설”이고, 영과 혼을 같은 개념으로 보아 영혼과 육,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분설입니다. 저희 장로교는 이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두 부분인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고 봅니다(마 10:28; 고전 2:14-15, 15:44, 46)(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3장을 보면 “성화”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그 전쟁에서, 그 남아 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 받음으로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의 영혼과 몸을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이 ... 흠 없게 보전’되고 우리의 이 ‘몸’도 죄로 더럽힘 없이 ‘보전’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직 ‘평강의 하나님’ 곧, 최후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되게 하시는 일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며 성령으로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써 이 일을 이루신다(벧전 1:2;

요일 1:7, 9).”

마지막 셋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미쁘신(신실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이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란 여인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창 18:11)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1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을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던 사라는 웃었습니다(10,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14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녀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에게 행하셨습니다(21:1).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인 90세에(17:17)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21:2-3).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롬4:19).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20-21절). 이러한 확신은 미쁘신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굳게 잡고 요동하지(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불성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쁘신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일은 우리가 불성실 할지라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하실 것입니다(살전 5:23). 그러므로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에게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면

장차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빌 1:6).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러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케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흠 없게 보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네 마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28절]

지난 주 목요일 새벽기도회 때 밖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설교한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 결혼 예배 때 주례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복, 인복, 물질의 복을 축복해 주셨는데 예배 후 장인 어른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시면서 ‘제임스는 이 3 가지 복을 다 받은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에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밖에 들려오는 빗소리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장마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 어른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분이 사랑하시던 정 장로님이란 분의 목소리를 전화로나마 들으시고 몸을 몹시 떠셨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 저는 장인 어른님의 그 마지막 몸 떠심이 적어도 그 정 장로님에게만 분에게는 “마지막 사랑의 몸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시고 장인 어른님의 장례 예배 때 조사를 하신 정 장로님은 조사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사랑의 몸짓을 생각할 때 저는 고 최분남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분이 St. Vincent 병원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저는 장로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린 후 최 할머니에게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최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산소 호흡기를 끼신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몸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마지막 사랑 표현을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의 표현을 하길 원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마지막 한 마디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28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다 쓰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네 마디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 그 네 마디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네 마디 중 첫 번째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기도 부탁을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기도 제목을 형제, 자매하고 나눠서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한 적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그 때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12명의 임원이 있었는데 동아리의 고문격이신 전도사님 한분이 우리 12명 임원들에게 두 명씩 짝지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 기도 파트너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한인 3세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했었기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 기도 파트너에게 영어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한 영어로 그 지체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으로 제가 영어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영어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하. 그 때부터 저는 기독교 동아리 지체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제 기도 제목들을 나눠서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는 지금도 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각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특히 자녀)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가족에 관한 간절한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이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기에 우리 가족에 관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서로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 동참해 주길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인 실루아노와 디모데(1:1)를 위하여 기도해 주길 부탁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이러한 기도부탁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개역개정)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은 “형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이란 말은 이미 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 부탁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와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두 번의 기도 부탁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부탁 내용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데 에서도) 급속히 퍼져나가 사람들이 경건하게 받아들이길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 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한 목적은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와 동역자들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도 부탁은 바울이 이기적 이래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 후원을 받으므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바울의 기도 부탁 목적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안전이라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기도 부탁한 진정한 이유는 복음 전파자인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외에도 주로 자기의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 로마서 15장 30-31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의 섬기는 일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열심히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바울이 섬기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엡6:19-20, 현대인의 성경). 이 기도부탁의 말씀도 보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기에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 3-4절 현대인의 성경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각 교회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을 보면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자 열심을 냈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인 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제가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제 입술로 뿐만 아니라 제 삶으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침을 뱉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프리카 마사이 부족 사람들은 반가움의 표시로 얼굴을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인사의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아마 여러분도 TV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동 사람들의 인사 방법은 서로의 뺨에 키스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인사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던지 악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악수를 하지만 친한 사이에서는 ‘비쥬’라는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쥬’란 얼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맞대면서 뽀뽀를 하듯 ‘쫉’, ‘쫉’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가울수록 소리를 더 크게 낸다고 합니다(인터넷). 우리나라 한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 아침마다 집안 어르신께 문안 인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안”이란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 또는 그런 인사”를 뜻합니다(인터넷). 유교사상을 기본으로 하였기에 당연히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백성의 첫 번째 도리이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자식 된 도리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그 문안 인사 방법이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은 서로를 향한 애정의 몸짓(a gesture of affection)을 가리킵니다. 이 서로를 향한 애정의 몸짓 표현을 하라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그 5번 중에 4번은 사도 바울이(롬 16:16; 고전 16:20; 고후 13:12)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사도 베드로(벧전 5:14)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끝맺으면서 서로를 향하 애정의 몸짓인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한 것입니다(MacArthur). 이러한 애정의 몸짓은 1세기 때 문화적 포옹과 키스 인사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에 그리 애정의 표현을 했습니다(MacArthur). 이 애정의 표현의 의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키스는 결코 열정(욕망)적이거나 육체적이 아닌 거룩한 것이어야 했습니다(The Bible Knowledge 주석).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심도 없다면 그 문안 인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겉으로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서로를 향하여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대로 “소리 나는 구리(놋쇠)와 울리는 팽과리” 밖에 되지 않나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하든(1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며, 여러분 또한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세 사역 식구들은 문화와 언어 등 많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명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애정 표현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자대로 진실한 사랑으로 표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밝은 미소로 환하게 인사하는 것이나 진지하게 악수하는 것 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잘 지켜 나아갈 때 그것은 목회자의 저의 기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쓴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감동을 받은 다른 사람의 편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 2018년 12월 1일에 저의 친구의 아들이 하나님께 쓴 편지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거의 모든 사람들과 인터넷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비록 제 친구의 아들인 토비(Tobey)는 그 편지를 작년 10월에 쓴 후 한 달여 만인 11월에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하나님께 쓴 편지를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 15살 밖에 안 된 형제의 믿음이 훌륭한지, 그 영어 편지를 읽고 나서 한국어 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나누고 싶어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여기 저기 그 편지를 나눴습니다. 암 투병 중에서도 고 토비 김 형제는 “더 많은 시련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저에게 당신(하나님)이 제 옆에 계시다는 것만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했습니다. 심지어 토비 형제는 “제가 결국 죽을지라도 이 지구에서 계속 살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당신께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셨는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귀한 믿음의 형제의 믿음의 편지를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때 그 형제의 편지를 여기 저기 나눈 이유는 제가 그 형제의 기도 편지를 도전을 받았듯이 혹시나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아 그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신학교 선배 목사님도 도전을 받으셔서 그 때 자신이 섬기고 있으신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토비 형제와 그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현대인의 성경) “나는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에게 꼭 읽어 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했습니다. 명하되 바울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형제”란 교회 안에 모든 남자 성도들에게만 읽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과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주석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특히 스스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명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A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었을 때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2,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2, 3절). 지금 말로 적용하자면 성경 말씀을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에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인 성도님들이 한국어 설교 등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어를 알아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마무리 부분에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살전 5:27)고 한 말씀은 이 편지를 남자들이나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 심지어 스스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읽어주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자기가 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형제에게” 꼭 읽어주라고 명한 것일까요? 그만큼 데살로니가전서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A Commentary, Critical and Explanatory, on the Old and New Testaments). 지금 바울은 매우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읽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구약 말씀을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읽으라고 명한 것이 말입니다(Believer’s Bible 주석).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1절)이 이뤄질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3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야겠지만 공개적으로도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나누며 또한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27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Believer’s 성경 주석). 그 3가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열쇠란 ...:

(1)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인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위해 기도해주길 부탁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2) 성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진실 되게 할 때에 우리는 다 함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우리가 다 함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했습니다(42절).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후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42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배워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공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끝맺었습니다. 주로 그는 자기가 쓴 편지를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무리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3-24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6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 빌립보서 4장 2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성경 골로새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등등.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란 개념을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생각난 성경구절인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은혜 개념은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에 “사도로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고(9절) 또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할 정도였는데(딤후 1:15)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도리어 긍휼을 입”어(13절)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14절) 그는 자기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자기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12절)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주님의 일에) 수고했습니다(고전 15:10). 이러한 은혜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수고하고 있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끝맺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썼을 때에는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을 주님의 은혜에 다 맡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현대인의 성경)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시작하면서도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1:1). 이렇게 편지의 시작과 마지막을 “은혜”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을 가리켜 성경적인 문법 언어로 “인클루지오(Inclusio)”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글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배치하고 가운데 그 주제를 설명하는 식의 구조를 말합니다(신학 동의어: 수미상관, 수미상응, 수미쌍관)(인터넷).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1:9),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므로(5절)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6절).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7절).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8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10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의 시작과 마지막에 “은혜”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는 편지의 시작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1:1)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편지의 마지막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5:28)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편지 쓰기를 끝맺으면서 마지막 네 마디를 했습니다: (1)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살전 5:25), (2)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26절), (3)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27절), 그리고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과 죽음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식구들 및 이웃들에게 마지막 한 마디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결론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 중심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살전 1:1; 5:28).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살전 1:1)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였습니다(5:28). 은혜로 편지를 시작하고 은혜로 편지를 끝맺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길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로서(1:9)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고(4절)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5절)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말합니다(9절). 이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6절) 바울과 그의 동역자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믿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2:13).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3:3)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었습니다(8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1:8). 한 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3절).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했습니다(4:9). 그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9절). 한 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1:3).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10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고(4:14)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16절). 한 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1:3).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사랑, 소망의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길 기원합니다.